

역사 현장에서 맞는 꽃바람... 왕인문화축제 3월 말 개막

영암군, 30일~4월 2일 유적지 일원 등 4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 음악회·어린이 체험 테마파크·관광투어 등 57종 프로그램 진행

영암의 대표축제인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가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영암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역사공원, 구림마을 일원에서 왕인문화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이란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기존의 장점을 강화하고 다채롭게 꾸민 6개 부문 57종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표 행사인 테마퍼레이드 'K-레전드, 왕인의 귀환'을 비롯해 '제33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현장백일장' 등 4종의 주제행사가 진행된다. 또 '국립공원원출산 생태탐방' 영암 유치기원 음악회 등 18종의 문화공연행사와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등 22종의 참여체험행사, '기(氣)찬 영암 관광투어' 등 6종의 연계행사, 포토존 '빛으로 물든 영암' 등 6종의 부대행사 등이 펼쳐진다.

왕인문화축제의 대표행사이자 컬러 콘텐츠로 자리잡은 '왕인박사 일본가오'는 'K-레전드, 왕인의 귀환'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선 보인다. 그동안 1600년전 일본으로 건너갔던 왕인박사를 재현했다면 이번에는 왕인이 현대로 귀환해 영암의 미래를 선언하는 변화된 컨셉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또 축제가 열리는 동안 꽃바람이 만개할 축제장 전역에는 왕인의 스토리가 담긴 공간이 구성된다. 왕인박사유적지와 구림마을 일원에는 왕인의 소동·상생 정신을 '빛'으로 구현해 주·야간을 아우르는 이색적인 포토존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림마을 달빛야행, 월출산 별 보기 체험 등 야간 향유형 프로그램을 새로이 선보여 방문객 체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램프 염선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in 영암', 왕인 천자문 월드, 북카페 '왕인의 숲'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는 왕인의 숨결! 영암 문화 체험과 봄꽃 사진관, 연인들을 위해서는 달빛 디제이퍼티 '신난파진기', 포토존 '빛으로 물든 영암' 등의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과 관광객들이 다함께 호기심을 느끼고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남주골 어울마당, 플로깅 역사투어 '왕인산보'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글로벌 축제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치 콘텐츠도 더욱 확대했다. 외국어 전문 FM라디오 방송, 외국인 전문 여행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전통의상체험, 세계민속공연, 외국인 음식점 운영 등 외국인 맞춤형 콘텐츠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우송회 영암군수는 "그동안 축제가 '왕인'이라는 인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왕인이 전한 문자, 활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역사공원, 구림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왕인문화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영암군 제공) 자, 책을 활용한 콘텐츠 중심의 스토리를 만들어 정체가 뚜렷하고 내실있는 축제로 키워나가고자 한다"면서 "우리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영암만의 차별화된 축제를 준비해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새로워진 '해남매일시장' 전국구 시장 꿈꾼다



1년만에 신축공사 마무리...청년몰·음식점 등 70개 점포 입점

"해남매일시장으로 장 보러 오세요." 해남군은 지난 1월 4일 시장 준공 승인을 받아 점포 입점을 완료한 해남매일시장(사진)이 28일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일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현대화 사업을 통해 2021년 시장 신축공사에 착수, 1년여만인 지난해 말 공사를 완료했다. 새롭게 문을 연 해남매일시장은 2층 신축 건물로 1층에는 58개 점포가 입점하고, 2층에는 청년몰 6개, 일반음식점 1개 등이 위치해 총 70개 점포

로 이뤄져 있다. 기존의 농수산물과 청과류, 건어물, 분식, 통닭 상가는 물론 공예품, 화장품, 재봉재, 공방 등 새로운 업종의 상가도 대거 입주해 한층 풍성해지고, 젊은 감각을 겸비한 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재건축을 통해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한 높은 천장의 비가림시설과 통일된 형태의 간판, 넓은 동행로를 확보해 시장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여유롭게 장을 볼 수 있는 최신 시설로 탈바꿈했다. 준공식은 매일시장의 새로워진 모습을 알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준공식 후에는 '2월은 매일시장 가는 달' 행사의 일환으로 경매행사와 함께 튀김 막걸리 파티, 버스킹 공연, 이왕권 추첨 등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군은 매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봄철과 여름철 야시장 개최, 추석 명절 장보기 행사, 크리스마스 트리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와 해남형 ESG와 연계해 녹색정원 시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는 대표 전통시장을 발돋움하기 위해 매일시장 상인회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1004섬신안상품권' 할인율 5%→10%로

구매 한도 월 50만원...군민 부담 경감·소비 촉진 기대

신안군이 다음 달부터 지역 화폐인 '1004섬신안상품권' (사진)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대폭 상향한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한 달 최고 50만원이다. 이때 10% 할인한 45만원을 내면 50만원 어치 살 수 있는 상품권을 가질 수 있다. 지역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과 마트, 주유소, 전통시장 등 1100여 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안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장 특산물 판매 공간에서도 상품권을 쓸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제공되는 신안자연휴양관과 엘도라도, 마리포사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 1004섬신안상품권 할인율 상향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고물가로 어려움의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1004섬신안상품권 할인율 인상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하길 기대한다"며 "신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상품권 구입으로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욱 기자 jylee@

목포 소상공인 홍보영상 무료 제작·TV 광고

공공배달업 제휴업체 선착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목포시가 소상공인들의 홍보를 지원하고 전남 공공배달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로 홍보영상을 제작 및 광고하는 '2023 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소상공인 및 공공배달업 제휴업체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도에서 홍보영상을 무료로 제작, TV 30개 채널에 송출한다.

영상제작 및 광고 비용이 없어서 코로나19 및 고물가, 고물가로 인해 영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프랜차이즈·대리점 포함) 및 공장 운영 제조업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3월10일까지 목포시청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 고향사랑기부금 1억 돌파

영광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시행된 지 50여일 만에 1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에는 모두 592명이 참여했다. 금액대별로 500만원 기부자가 5명, 100만~500만원의 10명, 10만~100만원의 13명, 10만원 이하 기부자는 564명으로 나타났다. 기부자 주소지는 서울·경기지역이 31.9%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역 27.2%, 전남지역 11.0%, 기타 29.9%로 다양한 지역에서 기부가 이뤄졌다. 답례품은 영광굴비가 45.9%로 가장 많았고, 영광사랑상품권 18.7%, 모시잎송편 17.5%, 쌀 7.4%, 기타 10.5% 순이다. /영광=이종욱 기자 jylee@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에 세상종합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60억 투입 다목적 체육관 등

영암군이 ㈜세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영암군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영암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722㎡ 규모로, 이곳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선다. 영암군은 영암종합운동장 내 부지를 후보지로 확정하고, 영암군 공무재산 심의와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총 6개의 건축사사무소가 참가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세상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선정작이 디테일한 현황분석을 통한 합리적 공간 배치가 돋보인다고 평했다. 또 시각적·기능적인 효율성으로 평면 구성과 함께 입면 구성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상징성을 구비



영암군 반다비 체육센터 조감도.

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 함께 이용하는 체육센터이면서도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의 체육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공재 작품' 중심 해남 군립미술관 건립

연동리 부지 확정...국보·보물 등 해남미술 작품 전시

해남군이 군립미술관을 짓는다. 이 미술관은 자화상으로 유명한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의 작품이 중심이 돼 해남 미술이 공존하는 곳으로 세워진다. 해남군은 군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군민 공청회 및 미술단체 간담회, 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건립 방향을 설정했다. 미술관 부지는 해남읍 연동리로 확정했으며 시설 명칭은 해남군립공재미술관으로 명명할 예정이다. 새로 조성될 미술관은 공재 선생의 국보·보물 등 작품과 근현대 해남미술 작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술관 설립 협

의를 한 후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서를 제출했다. 3월중 현장실사를 거친 후 4월 중 사전평가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라고 군은 전했다. 군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해남읍내 증가 중순 윤성철 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군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시설 조성, 유물의 보존·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미술관 건립이라는 군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재 선생의 유물의 수준에 맞는 미술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



출범 8주년을 맞은 완도군행복복지재단은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2023년 행복복지기금 나눔 사업'을 편다고 27일 밝혔다. 나눔 사업은 6억원을 들여 13개 사업을 121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13개 사업은 위기 가정 생계비 및 긴급 의료비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난청자(장애 미등록)

보청기 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사진)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에 맞췄다. 신규 사업으로 아동 언어 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총 47억8천400만원의 후원 금액이 모금됐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